

 금융감독원	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 도 자 료</h1>	
		

보도	2023.8.3.(목) 조간	배포	2023.8.2.(수)
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	책임자	국 장	김효희	(02-3145-6700)
	자산운용감독국	담당자	팀 장	임잔디	(02-3145-6717)
	한국거래소	책임자	부 장	이근영	(02-3774-8730)
	유가증권시장본부 공시부	담당자	팀 장	정상현	(02-3774-8740)
	금융투자협회	책임자	본부장	이창화	(02-2003-9016)
	자산운용1부	담당자	부 장	김재욱	(02-2003-9200)

자산운용사의 '의결권 행사 공시정보 DB 구축' 추진

- 「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개정 T/F」 중간논의 결과 -

I 개 요

- 지난 2월,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자산운용사 CEO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,
 - 자산운용사의 책임있는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한 '건전한 기업 경영문화의 선도자' 역할을 강조하며,
 - 금융감독원도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.
- 그 일환으로 금융감독원은 '23.4월부터 금융투자협회, 자본시장연구원, 자산운용사* 등과 함께 T/F를 구성하고,
 - * 주식형 펀드 운용규모, 의결권 행사 업무 전담조직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7개사 선정
 - 「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」 개정을 포함하여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해 개선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.

Ⅱ 주요 논의사항 및 진행경과

- 우선,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·공시업무 실태 분석, 업계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의결권 행사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본 결과,
 - 국내 주총의 단기 집중 현상, 과거 의결권 행사정보 DB 등 인프라 부족, 제한된 인적자원 등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기업별·의안별 안전을 면밀히 분석하는 데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의결권행사·공시 프로세스 개요 (3월 정기주총 예시)

시기	구분	주요 업무	세부내용
D-14	주총 공시	본격 업무착수	▸ 외부 자문기관 이용 시 자문의뢰
~D-7	의안 분석	자료수집 및 의안 분석	▸ 기초자료 수집 ▸ 의안 분석 및 검토
D-7	자문기관 회신	자문의견 검토	▸ 내부 검토결과와의 비교 및 타당성 등 검토
~D-3	의사결정	최종 의사결정	▸ 중요안건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의 심의·의결 및 최종 행사방향 확정
D-day	의결권 행사	의결권 행사	▸ 서면 또는 전자 투표 실시
-	사후 관리	행사내용 공시	▸ (거래소) 4월말까지 공시 (전년도 4/1 ~ 금년 3/31 기간중 행사내역) ▸ (협회) 5월말까지 제출(1/1 ~ 3/31 기간중 행사내역)

- 이에 T/F는 의결권 행사실무의 효율성 및 자산운용사별 비교 가능성 제고를 통해
 -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회사가 “성실한 수탁자”로 평가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고,
 - 의결권 공시관리 체계의 개선,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의 실무적 효용성 제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.

Ⅲ 의결권 행사 공시정보의 DB 구축 추진

- **(문제점)** 현행 공시관리체계는 협회와 거래소로 이원화되어 있고, 양자 간 공시 대상, 범위 및 기간 등이 상이*하여 의결권 행사 내역의 분석이 어렵습니다.

* 협회는 운용사가 제출한 펀드별 영업보고서를 통해 매분기별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하는 반면, 거래소는 상장주식에 대한 1년간의 자산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내역을 매년 1회 공시

- 또한, 의안유형 구분이나 주식수 기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운용사별 비교가능성이 떨어지고,
 - 특정 종목에 대한 의결권 행사내역 등 목적에 맞는 검색이 어려워 정보활용도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.

- **(개선방안)** 자산운용사가 의결권 행사 시 중요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, 투자자도 운용사별 행사내역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정보를 체계화할 예정입니다.

- ① **(공시서식 표준화)** 의안유형 구분 신설, 공시기재 기준 보완 등 공시서식 작성기준*을 보완하고, 이를 토대로 협회 및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하겠습니다.

*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별책서식1 <제21호>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 서식 개정

- ② **(공시채널 기능 강화)** 현행 운용사별 일괄 공시내역 뿐 아니라 의안유형, 종목 등 다양한 조건으로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정보의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.

- ③ **(협회와 거래소 정보 연동)** 협회(펀드 기준)와 거래소(운용사 기준)의 공시정보를 상호 연동하여 공시정보의 다각적 분석이 용이하도록 하겠습니다.

- **(기대효과)** 운용사별 공시정보의 비교가능성과 정보 활용도를 제고하여 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.
 - 구체적으로는 다음 사항들이 개선됩니다.
 - 운용사가 과거 의안별 유사 사례, 타운용사의 행사 이력 등을 쉽게 참고할 수 있어 의결권 행사방향의 효율적 의사결정이 쉬워집니다.

예를 들어 배당정책이나 임원 후보자의 적정성 판단시 과거 채택 또는 선임 여부 및 찬반 사유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.
 - 또한, 현재 투자자 뿐 아니라 잠재적 투자자도 여러 운용사의 의결권 행사내역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실한 수탁자를 쉽게 가려낼 수 있게 됩니다.
 - 특히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친 안전의 경우 운용사의 찬반 의사결정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
 - 금번 개선방안이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유도하고 주주가치의 제고를 통해 투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.

IV 향후 추진계획

- **(공시서식 표준화 및 공시정보 DB化)** 우선 의결권 관련 공시서식(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)을 개정하고 이에 따라 협회와 거래소 공시서식을 표준화하여 '24년 주총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
 - 또한 거래소 및 협회와 세부 개선방안 및 추진일정을 함께 마련하여 공시정보 DB 구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
- **(기타 제도개선)** 의결권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기타 제도개선 방안은 계속 논의중이며, T/F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